조계종통 정립한 '금명보정 선사' 조명하다



다송자 금명보정
현봉 지음
조계종출판사
2만7000원

금명 보정 선사 재조명 나섰던
조계총림 방장 현봉 스님 지어
생애, 업적, 차시까지 총망라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산 송광사는 한국불교의 위대한 선지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승보사찰이다. 한반도의 험난한 역사 속에서 송광사 역시 폐허가 될 위기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한 혼란기에 송광사는 물론 조계종의 종통을 혼신을 다해 지킨 선지식이 바로 다송자(茶松子) 금명 보정(錦溟寶鼎, 1861~1930) 선사다.

하지만 현대의 불자들에게 '다송자'라는 호도 '금명 보정(錦溟寶鼎)'이라는 법호도 낯설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송광사의 옛 자료를 수집하며 금명 보정 선사를 알게 됐고, 송광사 주지 소임을 맡았던 2001년 송광사에서 '다송자 금명보정의 생애와 사상' 이라는 이름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역사 속에 묻힌 금명 보정 선사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이를 계기로 금명 보정 선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 것이다.

현봉 스님은 2015년에 다시 한 번 송광사에서 '다송자를 중심으로 한 선사상(禪思想)과 송광사 다풍(茶風)'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금명 보정 스님의 업적과 행적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여겨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현재 다송자의 저술은 〈한국불교전서 제12책〉 '보유편'에 방대한 분량이 수록돼 있지만 한문인데다 한글로 번역되지 않아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난 2020년은 금명 보정 선사 입적 90주기였다. 이때 송광사 부도원에 '금명보정탑(錦溟寶鼎塔)'을 건립했다. 현봉 스님은 이후로도 금명 보정 선사에 관한 자료를 보정해 드디어 이 책 〈다송자 금명보정〉을 세상에 내놓게 됐다.

이 책에서 현봉 스님은 다송자의 문집 가운데 일부 행적을 뽑아 행장을 중심으로 업적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송자의 시고(詩稿) 1000여 편 가운데 차시(茶詩) 70여 편과 문고(文藁) 가운데 기문(記文) 몇 편을 골라 번역을 함께 실었다.

행장을 따라가다 보면 송광사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크고 작은 사건을 접하게 된다. 또한 한반도의 당시 시대상도 알 수 있어 귀중한 사료 역할을 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송광사성보박물관의 도움을 받아 남아 있는 사진 자료들도 이 책에 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금명 보정 선사 진영.

조계종풍을 재정립했다고 평가받는 다송자 금명 보정 선사는 어떤 인물일까. 금명 보정 선사는 송광사에 출가해 주석한 대종사로 법휘(法諱)는 보정(寶鼎)이며, 법호(法號)는 금명(錦溟)이다. 스스로 호를 다송자(茶松子)라고 했다.

금명 보정 스님이 송광사를 지키던 때는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혼란과 핍박의 시대였다. 조정의 관리는 승려를 노비 부리듯 하였고, 사찰은 종종 약탈의 대상이었다. 언제 목숨을 잃어도 놀랍지 않은 시대였다. 금명 보정 선사가 남긴 당시 기록에 이런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두 벗이 찾아와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면서 말하기를 "이런 난세에 보신하는 것은 재야에 숨는 것이 좋으니 함께 세속으로 나가도록 하자"고 하자, 대꾸하기를 "두 형들은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는가? 나는 이미 입산하여 불자(佛子)가 되었으니 맹세코 산을 내려가지 않을 것이오. 차라리 저런 산적들에게 해를 당할지언정 불자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리라. 그대들이나 바라는 대로 환속하여 스스로 도생하시기 바라오."

당시 일제는 일본의 조동종을 한국불교에 들여와 원종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찰을 통제하려 했다. 뜻있는 선사들은 이러한 만행에 저항하며 임제종 종무원을 송광사에 설립하였다. 이후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금명 보정 선사를 비롯한 선지식들은 임제종풍에 입각해 우리 불교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금명 보정 선사 역시 시대에 꺾이지 않고 평생 동안 송광사를 지켜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칫 사라질 뻔한 송광사의 모든 자료들을 한평생 수집하고 고증하고 정리해냈다. 오늘의 송광사가 승보종찰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금명 보정 선사가 그 틀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송광사의 역사를 남기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불교와 나아가 한국문화와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를 남긴 업적이다.

계맥과 다풍을 이어갔던 것도 금명 보정 선사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동국의 칠불계맥은 대은으로부터 금담에게 전해지고, 다시 초의와 범해로 전해졌다. 범해는 다시 송광사의 금명과 율암, 통도사의 선곡, 해인사의 제산과 취은 등 여러 율사들에게 전해졌다. 서상수계로 되살린 동국계맥을 중흥시켜 오늘의 한국불교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금명 보정 선사는 이러한 초의와 범해로 이어지는 계맥과 더불어 그들의 선, 교, 율을 이어받고 대변했으며 나아가 그들의 다풍(茶風)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범해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았고, 초의의 〈동다송〉과 〈다신전〉 등을 읽으며 대흥사의 다풍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스스로 자호를 다송자(茶松子), '차를 즐기는 송광사 스님'이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자긍심이 담겨 있다. 책에 수록된 시를 통해 우리는 금명 보정 선사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다.



한시서 길어 올린 혼자라도 걱정 않는 삶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원철 스님 글 /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흔히 '한시는 어렵다'고 말한다. 요즘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자로 기록된 것이 첫 번째요, 한정된 글자 안에 많은 뜻을 담고 있기에 그 의미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한시를 오롯이 감상하기보다는 분석하는 법을 가르치는 입시 위주의 교육도 여기에 한몫할 것이다. 하지만 한시는 그리 어려운 무언가가 아니다. 옛날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를 뿐, 결국 한 생을 꾸려나가는 한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는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시와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에는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다. 그건 한시를 쓴 이들이 문인이나 학자, 승려 등 당대의 지식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작품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만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언제든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 그래서 '고전'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한시다.

이 책은 불교계 대표 문장가이자 한문 고전의 대중화에도 힘쓰고 있는 원철 스님이 옛 문헌에서 가려뽑은 한시의 명구만을 옮기고, 이를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를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가 알려주는 것은 '한시'를 분석하고 번역하는 방법이 아니다. 한시는 소재일 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과 우리들의 삶,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말한다. 이를 통해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거울 삼아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59편의 글은 각기 다른 한시 구절을 주요 소재로 삼았다. 그 가운데에는 마음이 철렁하다 싶을 정도로 내 생각을 깨부수어 주는 구절도 있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게 하는 구절, 지난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구절도 있다. 여기에 저자 원철 스님은 각종 문헌과 경전을 참고하여 한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뒷이야기'를 달고, 스님 나름의 의미를 더했다.

중국 야보 도천 선사가 〈금강경〉 해설로 달아 유명해진 구절인 "빈 배에 가득히 허공의 밝은 달만 싣고 돌아온다(滿船空載月明歸)"의 원작자가 뱃사공 노릇을 하며 수행에 정진했던 화정 덕성 선사임을 알려주면서 원 저자의 공덕에 못지 않은 대중화의 공로를 치하하는가 하면, 조선시대 최한경이 첫사랑에 대해 읊은 "꽃밭에 앉아 꽃잎을 쳐다본다. 아름다운 색깔은 어디에서 왔을까?(坐中花園 瞻彼夭葉 兮兮美色 云何來矣)"라는 구절을 보고 '아름다움'에는 시간적인 요소가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런가 하면 다산 정약용이 자신보다 먼저 입적한 10살 어린 스님 친구를 위해 쓴 탑명(塔銘)을 보며 두 사람의 나이를 초월한 우정과 이로부터 시작된 불가(佛家)와 유가(儒家)의 교류를 되짚어보기도 하고, 계곡 물과 구름, 꽃향기와 종소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노래한 백거이의 시를 통해서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관계성에 대해 사유한다.

이렇듯 저자 원철 스님은 한시 속에 숨겨진 가치를 에둘러 짚어준다. 흔한 힐링이나 위로, 어떤 충고도 쉽게 하지 않는 스님은 우리 스스로 그 답을 알아낼 수 있도록 넌지시 알려준다. 이를 통해 세상과 떨어져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두려움 없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임은호 기자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
티베트인이 겪어온 비극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자비, 평화의 신념을 지켜온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담은 대표적인 100편의 글!
수바쉬 C. 카샵 편집, 허우성 · 허주형 옮김 / 876쪽 / 50,000원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지평
전통적인 불교명상과 불교심리학을 현대의 심리학 이론 및 실천과 융합하여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전망과 혁신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모리츠 키 편집, 이성동 · 김태수 옮김 / 932쪽 / 5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운 유사성과 상호 영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백운·태고·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근간>
불교 윤리 1, 2 / 다니엘 코조트 외 지음, 이동수 옮김
윤회 /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권 대학의 철학과 교재!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